

“韓·인도 경협, 시작단계… 제조업 넘어 4차산업 꽃 피우길”

文 대통령, 삼성전자 인도공장 방문

이재용 부회장 등 300여명 참여
“중동·아프리카 등에 수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 그룹 계열사 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했다.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에 있는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함께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모디 총리가 인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는 노이다 신공장을 방문한 것은 외교 전례상 없는 일로, 그만큼 인도가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특별히 예우를 했다는 평가다.

이날 신공장 준공식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관계자, 협력사 대표 등 핵심인사 3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이다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연남뉴스

신공장에만 6억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0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투자해 인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을 완공했다. 현재 인도에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점유율은 1위이지만 중국계 기업들이 2위를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1%의 점유율을 차이로 중국 기업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격려하기 위해 순방 일정 중에 공장을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노이다 공장은 한국과 인도의 50여개 부품회사가 협력하는 양국간 진정한 상생협력의 모델”이라면서 “노이다 공장이 양국 경제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도의 젊은 인구, 지리적 이점, 기초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경공업, 중공업, 첨단 IT까지 이어지는 경제발전 경험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성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이

번 노이다 공장 증설을 계기로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양국 경제 협력의 결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이 부회장 등과 함께 공장내 신규라인을 둘러봤다.

특히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현지 근로자 2명으로부터 신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휴대폰을 전달받고, 뒷면에는 친필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신남방정책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빈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장관님을 뵙게 돼 반갑다”며 “저는 인도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한국 주변의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와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꾸준한 교류를 통해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신남방

정책의 핵심대상국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 미래분야로 양국관계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정상회담에서 제시할 ‘사람·상생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 구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스와라지 장관은 인도 정부와 국민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인도 정부 역시 경제발전의 모델이자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와라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인도 내의 관심이 높다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6.5억弗 투자 인도최대 스마트폰 생산기지

文 대통령 방문한 삼성 인도공장은

생산량 월 500만대→1천만대 증가
2022년 시장 2.5억만대 확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인도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일정을 설명하며 “노이다 공장은 삼성전자가 6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드는 인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인도 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이지만, 중국계 기업들과 시장 점유율 1%를 두고 싸우고 있다”며 인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에 힘을 보태기 위한 일정이란 의미다.

인도는 7%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다. 모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친화적이며 투자환경이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다.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이 많아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다. 때문에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꼽혔다.

인도에 1995년 처음 진출한 삼성전자는 1997년 노이다 공장에서 텔레비전 생



작년 4월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갤럭시 S8·갤럭시 S8+ 미디어행사서 현지 언론 관계자들이 제품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을 시작했고 2005년부터 휴대폰 생산을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증설을 통해 노이다 공장 휴대폰 생산량은 기존 월 500만대에서 1000만대로 증가한다.

업계에서 인도는 성숙기에 접어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직 구매잠재력이 크게 남아있는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1억3780만대 수준인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2022년 2억5400만대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다. 현재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공장 증설 등으로 1위 탈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도시장에서 점유율 1위였던 삼성전

자는 작년 4·4분기 샤오미에 1위를 내줬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삼성전자와 샤오미의 점유율은 각각 23%와 25%였다. 올해 1·4분기에는 삼성 26.2%, 샤오미 31.1%를 기록했다.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인도 소비자들이 고가 프리미엄폰보다 20만원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지 생산을 통해 인도의 스마트폰 수입 관세 20%를 피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노이다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5월 인도에서 갤럭시 A6·A6플러스를 출시했고 J6·J8 같은 20만~40만원대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중저가폰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韓-인도, ICT 분야 등 교류 확대될 것”

文 대통령, 인도 일간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현재 양국의 경제 협력 수준은 시작단계”라면서 “제조업, 인프라,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정보통신 기술(ICT), 소프트웨어, 바이오, 사이버 보안, 헬스케어, 에너지, 미래차와 우주분야까지 공동연구와 우수인력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인도의 최대 영문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1838년 창간한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도 지식인층이 주 독자층으로 발행 부수만 약 320만부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인도는 첨단 과학기술, 우수한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능력과 광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한국이 가진 응용기술과 경험, 자본과 결합한다면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력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인도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신남방정책’의 비전으로 그 중에서 인도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자, 유권자 8억 명의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의 미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연간 7% 내외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2015년엔 경제성장률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다. 이런 추세는 2016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다. 내수시장 규모는 세계 3위권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인도의 이와같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인구 12억 5000만 명에 이르는 인도 시장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인도의 수준 높은 IT 기술과 풍부한 고급인력에 주목하고 인도와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적극적인 파트너십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제도적 기반인 CEPA(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감으로써 교역·투자가 더욱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美·중무역 갈등속 인도서 기회 잡아야”

김현중 본부장, 뉴델리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최근) 무역갈등을 봤을 때, 지금은 인도 (시장)에 참여해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뉴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역전쟁인지, 무역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귀국 후에 신중하게 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그 질문과 관

련, 시장 콘텐츠를 다양화(diversification)하고,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4강(미·일·중·러)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G2(미국·중국)로 인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에 준하는 파트너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인 ‘악샤르담 힌두사원’을 방문, 환영나온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남뉴스